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4 Spring

Vol. **80**

희망미소

www.kclf.org



기쁨의 메달을 목에 거세요.



오연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총장

들뜬 마음으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올 겨울은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혹독한 훈련을 하며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에 한눈팔지 않고 매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해준 김연아 선수는 하루 8시간씩 줄 잡아 3만 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타해지기 쉬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선수들이 전해준 열정과 감동을 느끼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소아암 환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나눔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후원자님은 어떤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과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완치를 소망하는 소아암 가족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행복해지기를 희망하는 후원자님들 모두의 마음과 노력이 결코 올림픽 선수들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분투하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기쁨의 메달을 목에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의 2014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달팽이

정 유 진

모든 게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고가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가는 건 멍청하다 생각했다.
 빨리 가야 했고 또 일등이어야 했다.
 누구든 날 부러워하길 원했을지도 모른다.

새가 되어 날아가길 바랐다.
 그러던 내가 날개가 꺾여 날아가지 못하게 됐을 때
 문득 느리게 가던 달팽이가 눈에 들어왔다.
 빠르지 않다. 오히려 너무 느렸다. 큰 걸림돌은 피해갔고 처음엔 한심했다.
 그러다 문득 날개가 꺾여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내가 보였다.

어쩌면 달팽이는 나보다 훨씬 용감할지도 모른다.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해 겁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빠르지 않다. 그렇다고 최선이 아닌 것은 아니다.
 느리다. 그렇다고 최고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날개가 꺾인 지금, 이제 그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걸 느낀다.
 모든 게 빠르고 최고를 원했던 내가,
 가장 나답게 느린 달팽이가 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 꿈 많은 17세 소녀 유진이는 2011년 12월 골육종으로 진단받고, 2013년 3월 치료종결하였습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사회복지서비스

2014년 보건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2013년도 기지원자 중 2014년도에 만 18세(1995년 1월 1일~12월 31일)가 되는 자에게도 지원하되 2014년도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원/월평균 소득)

2인	3인	4인	5인
3,082,251	3,987,354	4,892,460	5,797,566

▶ 재산(원)

2인	3인	4인	5인
235,914,891	257,619,999	279,325,179	301,030,359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 1) 법정본인부담금
-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소아암 환자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지원하되, 매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
: 일반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조혈모세포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3)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 희귀의약품 구입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삼입물, 제대혈 비용 등)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만 4세~만 18세 미만까지 1회에 한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비

- *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자료출처 : 201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도

* 서비스 내용

사업군	사업유형	서비스 대상	내용
아동재활	영유아 발달지원	· 만 6세 이하 아동 · 평균소득 100% 이하	· 발달문제 우려되는 영유아 대근육, 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 · 평균소득 100% 이하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교사, 원장 등 추천자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 인지, 놀이, 미술 프로그램 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 만 8세~만 13세 이하 아동 · 평균소득 100% 이하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아동 우선지원	· 정서불안, 문화적 소외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역량	아동인지 능력향상	· 만 2세~만 6세 이하 아동 · 평균소득 100% 이하	· 독서도우미 주1회 파견 (책읽기, 도서지급 및 독후활동, 부모 독서지도 중 선택)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기타	· 지자체 사업 안내 및 공고 참고	· 아동 비전형성 지원, 아동 리더십, 멘토링, 아동문화활동 지원 등
신체건강 관리	비만아동 건강관리	· 만 5세~만 12세 이하 · 경도(비만지수 20%) 이상 비만 아동 · 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보육정책 (특수교육 대상자 기준)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 www.bokjro.go.kr	·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통지서가 없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보육료 394천원(만 3세~만 5세) · 보육료 414천원(만 6세~만 12세)
	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아동	· 0~35개월 미만: 20만원 · 36개월 이상: 10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원칙

(※2014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12천원	87,604	93,160	88,737
3인	4,281천원	128,700	146,611	130,714
4인	4,836천원	145,747	164,220	148,029
5인	5,041천원	152,509	171,663	155,163

*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시도별로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소아암 치룬 경험은

미래로의 디딤돌이자 돌도 없는 보물입니다

엄다빈

1991년생
2006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2007년 치료종결
2014년 현재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재학 중



현실감 없이 내 병명을 알게 되었다.

2005년도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생전 처음 보는 동네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엄청난 소심쟁이인 나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마 이것이 원인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1년 후인 2006년, 중 3이 되던 해 나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잇몸이 붓고 감기에 걸리더니 도통 낫지를 않았다. 감기는 원래 자연스럽게 낫는 거라며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더욱 더 심해졌다. 결국 아버지와 함께 등교 전에 잠시 들릴 생각으로 동네 병원에 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피검사를 하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더 큰 병원으로, 솔직히 어리둥절했다. 학교에 가야하는데 병원만 전전하고 있으니 내가 어딘가 좀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와중에 일하시던 어머니가 오셨던 것 같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두운 병실에서 혼자 방치되었던 것 같다. 아니 방치되었다기보다는 어른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렸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내 병명을 듣게 된 건 조금 후의 일이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현실감이 없었고 가기 싫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뻐다.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내가 아프면서 변화된 일

치료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다시 그런 경험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가슴에 관을 잡는 건 너무 무서웠고 거식증 증세가 있는데도 억지로 음식을 삼키는 건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왔을 때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건 이렇게나 힘든 것이구나 하고 체감했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잤다. 최대한 많이, 깨어있어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그리고 괜히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책을 읽거나 자수를 놓거나 하는 활동은 조금씩 했지만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선 내 무의식이 내 정신만이라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 탓인지 나는 치료과정의 기억이 생생하지 않고 단편적이다. 때문에 나는 내가 아팠던 기억보단 내가 아팠음으로 인해 변화한 일들에 대해 전하고 싶다.

가족의 따뜻한 온기에 치유받고 견뎌냈던 세월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엄청난 소심쟁이었다.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고 입원을 하게 되자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셨다. 아마 뒤에서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지셨을 두 분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내 앞에서 언제나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건 가능한 한 모두 해주려 하셨고, 나는 그런 따뜻한 온기에 치유받았던 것 같다.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부모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힘든 치료를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입원해 있는 동안 부모님과 지금까지는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주 가까워졌다. 지금도 그 때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난 병마와 싸워 이기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사이버학교에서

입원치료가 끝나고 나는 꿈사랑사이버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은 학교에서 보되 공부는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식이었는데, 나는 이 공부시간을 아주 좋아했다. 수업은 화상채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을 심하게 가리는 나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한다기보다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다.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오전 수업만 듣고 귀가하는 형식으로 했던 학교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이버학교에서의 수업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따랐다. 모든 선생님이 좋았지만 난 그중에서도 국어선생님을 가장 따랐고 편지도 여러 번 주고받았다. 내가 현재 전공하고 있는 국어국문도 국어선생님과 만남을 계기로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선 이겨내. 그러면 아팠던 시간이 네 갈 길에 놓인 디딤돌이 될 것야.

나는 지금 본 치료는 모두 끝내고 부작용 치료만 받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부작용은 뼈가 약해진 것과 우울증인데 둘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 대학에서 원하던 전공을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새로 사귀면서 스스로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소심쟁이었던 내가 아니라 뭐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가 된 것이다. 이 변화가 아주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가 아파했던 나날들을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한창 투병 중인 환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 지 사실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투병의 아픔은 어떤 좋은 말을 듣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이겨내, 무조건 참고 힘내서 밖으로 나와, 그러면 내가 아팠던 시간들은 너의 미래에 장애가 되긴 커녕 네 갈 길에 놓인 디딤돌이 될 것이며, 다른 이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보물이 될 거야.'

나는 아프기 전부터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원래 개를 좋아하는데다가 당시 키우고 있던 개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이제 개는 못 키운다고 하셨다. 나는 물었다. "그럼 얼마나 지나면 다시 키울 수 있어요?" 돌아온 대답은 5년. 키우던 개를 떠나보낸 후 나는 엄청 울었다.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치료종결 후 5년째가 되던 해에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개를 키워도 되냐고 물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하셨다. 그 뒤로도 외래에 올 때마다 물어봤던 것 같다. 왜 키우면 안 되냐고. 너무 키우고 싶다고. 그러기를 2년, 한 달 전에 교수님께서 드디어 허락을 해주셨다. 한 번 키워보라고. 너무 기뻐다. 옛날의 그 아이를 다시 안을 순 없지만, 새로운 아이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이 멈추질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가 아팠던 시간들이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맞이할 새 식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처럼, 소아암 어린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강민백, 이민정 후원자님은 2월 15일 부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귀한 축의금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선택한 강민백,이문정 부부! 이 부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두 분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을 이렇게 보니 새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연애 스토리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강민백, 이문정입니다. 저희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일 년 정도를 직장동료로만 같이 지냈죠. 그러다가 제가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전부터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내는 저한테 한 번도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며 주저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가량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가 결국 정식 교제를 승낙받았습니다.

어렵게(?) 결혼까지 골인하셨는데요?^^ 결혼 축의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뜻 깊고,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 분들이 주신 귀한 축의금을 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흔히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축의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양가 집안의 반대는 없었나요?

사실 저희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을 때 당황하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니 저희 두 사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두 분께 '나눔'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질 않아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눔'이라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은 꼭 알려주고 싶어요. '나눔'이라는 것이 꼭 무언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론 내가 받기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가는 것이라는 걸요.

앞으로 생겨날 자녀들도 예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처럼, 소아암 어린이들이 얼른 건강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2012년 겨울,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앞두고 집에서 온갖 생각이 들던 그 때 문득 '백혈병'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와 같은 병을 겪는 아이들은 한창 뛰어놀고 어리광 부려야 할 때에 얼마나 힘들게 치료받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치료가 끝나면 꼭 아이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희망을 주자라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무사히 끝났고 몸이 좋아질 즈음해서 공작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을 하는 날, '아이들이 힘없이 있진 않을까? 내가 준비한 수업이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일까?' 등등 걱정 가득했던 저에게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총각이예요?', '선생님은 음식 뭐 좋아해요?' 등 예상치 못한 질문들과 빛나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에 제 걱정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4개월간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정말 기분 좋은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다리가 아픈 아이를 2층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안고 올라갈 때 아이가 무겁지 않느냐며 웃을 때, 비즈공예 시간에 선생님을 위해 팔찌를 만들었다며 건네줄 때, 쉼터 어머니께서 감사하다며 호두과자를 주셨을 때... 마치 공작수업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수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제가 힐링받는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성인과 아이들의 차이는 마음가짐 혹은 자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은 병을 겪게 되면 절망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거나 혼자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자기 과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마치 치료를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힘없던 아이들도 수업을 진행하며 장난도 걸어보고 말도 많이 하다보면 금세 밝은 웃음을 되찾곤 합니다. 쉼터 선생님께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잘대고, 수업 때 만든 것을 어머니께 자랑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위해 사진 찍는 아이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없으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스키장 리프트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적도 있었으며 큰 병도 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저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줄 수도, 아픔을 함께 나눌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물랐을 것입니다. 골수 기증자, 헌혈자 등 타인을 위해 선뜻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나누고자 시작한 봉사활동은 제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늘 긍정적으로 웃자는 생각을 저에게 심어주었고 아이들의 관점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뜻 있는 것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재단에 이 글을 빌어 감사를 드리며, 글을 읽는 부모님,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빈 자원봉사자는 2013년 11월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마지막 선물



17살 윤진이는 2010년에 상피육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습니다. 힘든 치료 중에도 만나면 항상 씩씩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하는 경상도 소녀. 그런 윤진이가 2013년 12월 우리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윤진이가 떠나고 윤진이가 모아 놓았던 용돈으로 아이가 정말 기뻐할만한 일을 하기로 결심한 부모님은 심터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심터 TV가 오래되었잖아요. 심터 TV를 바꿨다고 하면 윤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라며 42인치TV 3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윤진이는 우리 곁에 없지만, 윤진이와 가족들이 전한 마지막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심터 가족들은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계 탔네, 계 탔어~!



TV에서, 스크린에서 봤던 그가 심터에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배우 원빈 님~O~ 동양생명보험에서 '원빈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호카드 보내기 캠페인 이벤트에 서울 심터가 당첨된 것입니다. 심터 가족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 생길 수 있냐며 놀라셨답니다. 기념사진 촬영 시간에는 원빈 씨 옆에 앉기 위한 치열한 눈치잡전이 벌어졌는데요, 원빈 씨 옆에 앉은 어머님께서 "오늘 계 탔네, 계 탔어!"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선물한 원빈 님! 감사합니다!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마법의 시간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가득한 2월말, 호남지역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최현우 매직콘서트'를 관람하였습니다. 흥미진진한 마술과 중간중간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들이 있어 관람시간 내내 눈을 땔 수 없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가족들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마법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 본 프로그램은 신한카드 아름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세상을 향해, 꿈을 향해



지난 12월 18일, 긴 시간 힘든 치료를 이겨낸 소아암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치료종결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벌써 11회째를 맞는 뜻 깊은 자리에 그 동안 치료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멋진 파티복을 입고, 예쁜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밝은 표정으로 찰칵, 찰칵~ 치료종결 기념메달을 목에 건 친구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향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NH농협카드, HANN엔터테인먼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들의 즐거운 설맞이

치료 때문에 병원에서 설 연휴를 보내야 하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설맞이 행사가 지역별로 실시되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색동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재미있는 율놀이로 흥겨운 추억도 만들고, 병동 친구들과 설맞이 떡을 함께 나누며 올해는 건강해지자는 덕담으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지원 결정
환아

2013. 12.~ 2014. 2.

이식비

고려은단(주)

허○은(신경모세포종/국립암센터) 8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각 1,000만원

왕○영(원시신경외배엽종양/서울대학교병원)
이○우(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아산병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온○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1,500만원

(주)이베이코리아 옥션

노○혜(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서○혜(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2,000만원
이○아(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장○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2,000만원
최○재(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2,000만원

KB국민은행

윤○인(활막육종/삼성서울병원) 1,500만원
정○빈(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000만원

재활치료비

다음희망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린(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6,024,889원

배우 송중기

권○진(골육종/서울아산병원) 604,000원
박○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400만원
유○린(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3,975,111원

해피빈

권○진(골육종/서울아산병원) 2,396,000원

홍현의 후원자

김○준(조직구증식증/서울아산병원) 300만원
송○솔(수모세포종/동산의료원) 400만원
이○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동산의료원) 300만원

(주)효성 언양공장

윤○렬(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500만원

치료비

김동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빈(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500만원

나향

이○승(재생불량빈혈/가천대 길병원) 65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길(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700만원
빙○환(급성골수성백혈병/국립암센터) 800만원
온○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200만원
조○환(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6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김○연(악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1,200만원
변○진(골육종/서울성모병원) 800만원
오○윤(연부조직육종/삼성서울병원) 5,378,400원
이○우(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아산병원) 690만원
조○환(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800만원

(주)드림팩토리클럽

장○광(유잉육종/국립암센터) 600만원

(주)맥텍

최○석(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1,000만원

메리츠화재

정○진(신경모세포종/서울성모병원) 200만원

삼성물산(주)

구○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500만원

삼성SDS

윤○은(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6,870,540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오○윤(연부조직육종/삼성서울병원) 410만원
최○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690만원

(주)세아제강

서○도(비호지킨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1,596,260원

신한금융지주회사

온○주(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10,989,910원

씨게이트코리아

송○린(대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7,494,440원

(재)우체국공익재단

김○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500만원

(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김○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6,151,354원

익명 후원자

유○현(뇌종양/서울아산병원) 300만원
윤○경(조직구증식증/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000만원
이○지(중증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주○호(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200만원
허○희(간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피피디

서○혜(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3,706,551원

한국증권금융,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혜(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3,331,420원

현대엘리베이터(주) 각 300만원
노○미(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홍○림(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KB국민은행
신○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김기한 후원자
변○진(골육종/서울성모병원) 100만원

나향
서○혜(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100만원

디자이너사이드 서하준갤러리
김○현(섬유육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00만원

삼성물산(주)
유○현(뇌종양/서울아산병원) 100만원

씨게이트코리아 지정기탁
송○린(만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300만원

액센츄어
최○석(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100만원

원정호 후원자
김○애(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만원

이소희 기금
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100만원

2PM 김민준 팬클럽 with Jun. K
김○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 150만원

2PM 준호 팬페이지 누너건
구○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125만원

2PM 준호 팬페이지 온더스테이지
박○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125만원

KT&G 지정기탁
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 30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김○길(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서○도(비호지킨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윤○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임○경(골육종/동남권원자력병원)
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정○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홍○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황○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

한국거래소노동조합
김○솔(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엄○미(급성림프모구백혈병/원주기독병원)

(주)효성 연양공장
이○원(악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가발

AJ렌터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애(재생불량빈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영(골수증식성질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은(골육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KB국민은행
김○욱(골육종, 원자력병원)
성○윤(급성림프모구백혈병, 서울성모병원)
전○민(악성신생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최○(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대학교병원)
최○경(난소생식세포종양, 서울대학교병원)

하이모
이○솔(악성림프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아(신경모세포종, 삼성서울병원)
허○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 KCLF

신규 후원자 소식

2013. 12. ~ 2014. 2.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성택 강성환 강영록 강태경 고영을 권기정 기영미 김광욱 김기돈 김남희 김도승 김동익 김동하 김미경 김봉신 김성훈 김수영
김여은 김영화 김용민 김용완 김은주 김익래 김인철 김정숙 김종준 김종훈 김진선 김진환 김학제 김현옥 김혜승 김효정 나문희
남기현 남창우 문성훈 박기향 박병찬 박선용 박성정 박승원 박용진 박정률 박정우 박종태 방서현 배덕병 서창수 성진수 손영우
손지민 손혁표 송정민 신도화 신은정 신현섭 심원섭 심유청 양선호 양희준 어진석 어진향 원현지 원현희 유선화 유현주 유현진
윤승환 윤신애 이덕남 이영순 이은진 이인규 이정철 이준석 이지현 이창우 임선영 임영순 임정현 임채훈 장나리 장미희 장영근
장예담 장재정 장정미 장혁재 장혁주 정소영 정신호 정정미 정진수 조강산 조수연 조항삼 채희창 최기식 최유정 최은영 최태식
풍희섭 홍보미 홍성래 황수연 황연정

일시후원

강보경 강연지 공미혜 권민규 김문주 김우택 김자영 김장미 김정남 김정숙 김주현 김진미 김철준 노종식 노현서 류근하 문성욱
문성훈 문정남 박대실 박수정 박슬기 박정운 박주완 박진옥 방성철 배유미 서민정 손영준 신성수 신지은 양현식 오진희 유민정
윤성찬 윤성혁 이가람 이범수 이영숙 이정애 이찬우 정우교 정은혜 정현택 조경미 조영오 조우현 조혜진 진은주 최유진 최재식
한나경 허명은 황형돈 (주)오리콤 Johari Kamsari 경북대병원학교학생일동 범서농협구영 부산시민교회4여전도 삼각산고등학교
안산호동초4-5 태장초5-1일동 한국대학생마케팅협회1팀

후원물품

OCI 중고책, 단열재 시공 및 도배 2PM 준호 팬페이지 어바웃어보이 김치냉장고 LG전자 TV OPS맑은누리 중고책, 살균소독 가수·배우 김현중 쌀 경북지방우정청 휴지류, 치약 그룹 빅스타 소속사 쌀 김경주가족 과일 (주)롯데닷컴 레고선물 리바트 프로그램비 서울발레시어터 공연티켓 우지수 크로스백 가방故장윤진가족 생필품, TV 정행임가족 휴지류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조현서가족 김치, 음료 (주)파리크라상 프로그램비 디시인사이드 정준영갤러리 기저귀 가수 이승환 팬 향균마스크 제국의아이들 김동준 팬 음반 (주)아이코닉스 문구류

헌혈증 (장)

곽복호(50) 박성빈(35) 궤이빈(35) 김민성(3) 김민주(5) 김세영(37) 김종훈(10) 노현서(35) 류지현(114) 박기식(10) 박은우(6) 박지영(50) 배건호(6) 배상민(4) 서현정(3) 심현주(50) 오승하(13) 원유나(4) 윤보람(6) 이은경(7) 이종철(10) 이현아(10) 익명(300) 임은하(1) 임찬오(13) 정희정(6) 조연우(35) 조영민(28) 조영오(1) 천준호(756) 최선영(3) 하상욱(200) 한정아(11) 한준식(6) 황인우(10) 1968-301세대(300) BAP총업 업데이트(25) EXO 카이 팬모임(161) PAT총로점(106) PPD(7) 가수마이네임팬클럽마이걸(101) 강소라공식팬카페(81)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85) 공군사관학교 헌병대대(500) 공무원연금공단(200) 미래에셋생명보험(261) 벼룩시장(218) 부석고등학교(30) 불락비 타임(63) 빅스타&온리원(15)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51) 삼성전기 세총사업부(1,500) 새천년카를리니(31) 서울특별시청(535)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88) 송호고등학교(234) 슈퍼주니어 성인 팬클럽연합(40) 스페시맨(65) 신천지 부산교회(100) 신한은행(500) 씨게이트코리아(100) 아이유갤러리(72) 안산제일교회(63) 우체국물류지원단(17)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20) 종로구시설관리공단(77) 진주대대(23) 충북대 미생물학과(211) 테던패밀리위터파크(1,132) 프로메트릭코리아(3) 하이원리조트(3,797)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22) 현대엘리베이터(153)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21)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 체 국 : 012989-01-003327
농 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KCLF 희망소식

동국제약(주) 송년음악회



2010년부터 해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동국제약(주)에서는 2013년에도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년음악회'를 통해 재단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씨계이트코리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인 씨계이트코리아에서는 지난 12월 임직원 바자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과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이노션



2011년부터 나눔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주)이노션은 지난 12월 소아암 어린이 간접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엘리베이터(주)에서는 지난 12월 임직원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12월 '피겨Queen 연아사랑적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다양한 소아암 어린이 지원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증권금융



201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은 2013년 12월에도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후원금을 모아 치료비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 위촉 · 종결식



2013년 한 해 동안 홍보대사로서 멋진 활동을 보여준 김건우, 조동현, 한유빈 어린이와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소아암을 알리는 김건우 어린이와 함께 2014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소연, 조현서 어린이와 가족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힘든 치료생활 중에도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희망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피디



지난 12월 PPD에서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모금활동으로 모아진 후원금과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주)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3년 12월 털모자 160개와 후원금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홍명보장학재단과 함께한
2013년 마지막 KICK OFF!**



12월 29일, 홍명보장학재단이 주최하고 해외리그 올스타 선수들과 K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함께한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3'에 초청된 소아암 어린이들이 아이들은 TV에서 봤던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직접 보고, 사인공도 선물 받았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에이스종합건설(주)



에이스종합건설(주)에서는 임직원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하여 해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도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태진인터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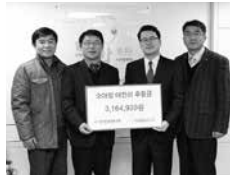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 (주)태진인터내셔널 루이까뜨즈에서 지난 12월 치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호수의나라 수오미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지난 1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행복나눔기부금'과 함께 순둥이 물티슈를 전달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3년 12월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은 2013년에 이어 올해도 FC와 회사가 함께 1년 동안 모은 후원금과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메리츠화재



2008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는 메리츠화재에서는 2월, 나눔펀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미스 & 누디진 코리아



자원봉사단체 AMIS(아미스)는 지난 12월 케이블 채널 OnStyle(온스타일) '패션킬라(Fashion Killa)'를 통해 찍은 '누디진 코리아'와의 자선화보 기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아미스 대표인 축구선수 이 호(경찰청 소속)와 함께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오태환(충주협멜 소속) 선수, 배우 권혁수, 개그우먼 안영미, 서수경 스타일리스트가 전달식에 참여하여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주)효성 언양공장



2010년부터 회사와 임직원의 매칭그랜트로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해오고 있는 (주)효성 언양공장에서는 지난 12월 치료비 및 간접치료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새천년카클리닉



대전에 위치한 새천년카클리닉은 2월,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과 함께 '헌혈증 할인 기부행사'를 통해 기부받은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기금전달

김기한, 나향(법무법인 태평양 여자변호사모임), 대한송유관공사, (주)맥텍, 배우 송중기, 이소희기금,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대학생마케팅협회1팀, 한전KPS 임직원, 현대엔지니어링(주)



2014 우체국공익재단 위탁공익사업 선정

우체국공익재단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통한 소아암 환자 지원사업'을 2014년 위탁공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14 학습 지원 시작!

장기간의 치료과정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아암 어린이의 학습습관 개선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학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0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의 가정학습활동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메리트화재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2014 해피홈런 체력증진 지원



적절한 운동은 체력이 약해진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소아암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을 돕는 '해피홈런 체력증진'이 올해도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스포츠도토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2PM 김민준 팬클럽 'with Jun. K'에서는 준케이(김민준)군의 생일을 맞아 후원금 150만원과 함께 후원환아를 위한 예쁜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2PM 준호 팬페이지 '어바웃어보이', 'Nuneogun(누너건)', '온더스테이지'에서는 준호군의 생일을 맞아 후원금 125만원을 각각 전달해 주었습니다.
- B. A. P 팬페이지 연합에서 B. A. P 데뷔 700일 기념으로 음반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EXO 첸 팬페이지 '김중대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서하준갤러리에서 드라마 '오로라 공주' 종방 기념으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유아인갤러리에서는 2013년 세 번째 모금을 진행, 3,131,247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정우갤러리에서 배우 정우의 생일을 맞아 3,135,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정준영갤러리에서는 환아들을 위한 기저귀 1,000개와 해피빈 쿵 14,211개(1개=100원)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슈퍼주니어 규현 팬사이트 '시크릿'에서는 규현군의 생일을 맞아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유비쿼터스에릭(유비에릭)에서 신화 에릭(문정혁)의 생일을 맞아 216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재국의아이들 김동준 팬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음반과 다과를 보내주었습니다.
- 가수 이승환 팬은 환아들을 위한 항균마스크 36박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오픈

하이파이브(www.highfive.or.kr)는 질병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미 아이와 사별한 가족과 그 아이를 알고 지내던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 준 소중한 사람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면서 위로받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별가족모임 참가안내

일자	2014년 4월 19일(토)		
참가대상	사별한 소아암 어린이 부모 및 형제자매		
장소/문의	서울 종로구 와룡동 (3호선 안국역 인근)	/ 02-766-7671	
	회문산 자연휴양림 (전북 순창군 소재)	/ 061-375-7671	
	허브랑 야생화 체험학습원 (부산시 금정구 소재)	/ 051-244-7677	





"치과치료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는 선생님을 앉혀놓고 마취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충치치료도 합니다.
치료를 받으며 아파서 울기는 했지만, 예뻐진 치아에 반짝반짝 스티커들을 붙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힘들었던 기억을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아이.

"이제는 괜찮아요."라며 말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7살 나경이는 유잉육종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 www.kclf.org ✉ cancer@kclf.org